

## 경상대 학부생 SCI 논문 발표 화제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생화학과 이윤호 씨.(경상대학교 제공/노컷뉴스)

박사과정 대학원생도 발표하기 쉽지 않은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논문을 학부생이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에 따르면 생화학과 이윤호(23.4학년)씨가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설계 분야에서 새로운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구조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연구결과를 SCI 논문이면서 국내 최대 규모 학회인 대한화학회 영문논문집 'Bulletin of Korean Chemical Society'지에 제 1저자로 투고했으며 현재 최종 심사에서 게재 수락 판정을 받아 곧 발표된 예정이다.

'파마코포어 모델과 분자도킹 연구를 이용한 아데노신 키나아제 저해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은 신약설계 기법을 이용한 아데노신 키나아제 저해제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씨는 이번 논문 외에도 지난 1년 동안 국내 논문인 한국생물정보학회지인 'Bioinformatics and Biosystems'지에 공동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제 1저자로 1편의 포스터를 발표하는 등 대학원생 못지않은 연구 활동을 수행중이다.

이씨는 "요즘 시대는 한 학문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는 크게 발전할 수 없으며 생물정보학과 같이 생화학, 전산학, 통계학 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퓨전학문을 연구해야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연구하고 있는 4, 5개의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좋은 저널에 투고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소가 지난 1960년대부터 사용했다. SCI 집계계의 바탕이 되는 과학기술논문학술지는 세계적으로 약 5,200종이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가운데 SCI에 수록되는 것은 12종 정도이다.

경남CBS 송봉준기자 bjsong@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07-02-17 오전 8:20:35  
최종편집승인시간: 2007-02-17 오전 8:39:19

Copyright © Since 2003 by CBS, 노컷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닫기